5강 로마네스크 건축의 완성점

1교시 노르망디 지방의 로마네스크 건축

▲ 구조첨단성

오늘은 209페이지 노르망디(Normandie)지방. 노르망디는 렌느(Rennes) 캉(caen)이라는 도시가 중심도시인데, 렌느는 바로크 도시고 캉이 로마네스크 도시예요. 파리에서 안 멀어요. 요즘 기차가 잘 도입되어서 쉽게 갔다 올 수 있죠.

구조첨단성이라는, 로마네스크 건축의 완성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중세라는 게 로마네스크 보다 앞뒤로 더 긴 끈이기 때문에, 프레 로마네스크(Pre-Romanesque)부터 비잔틴이런 8세기 6세기까지도 중세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뒤에 고딕(Gothic)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딕에서 나타나는 수직성으로 가는 중간과정이란 얘기죠. 반면에 로마네스크의 자체적인 완결성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로마네스크라는 것도 고딕의 하부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문명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완결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단 얘기죠.

로마네스크는 고딕의 극단적 수직성 보다는 조화, 좀 있음 나오겠는데, 이 로마네스크만의 조화 개념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추구 된단 얘기죠. 나중 가면 과연 그렇게 수직성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한번 벌어져요, 성직자들 사이에서.

고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쉬제(suger)를 필두로 한 성질 급한 성직자들은 하늘 개념과 빛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높이 올라갈려 그래요. 이 빛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빛은 교리나 기독교 사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건축에서도 빛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로마네스크 말기에 오면 수직적으로 올라가자는 그룹과 머물자는 그룹이 나뉘면서, 수직적으로 올라가자는 그룹이 고딕을 이끌어가죠. 수직보다는 인간과의 조화, 현실과의 조화를 지키자는 그룹하고는 나뉘게 되는 거죠.

노르망디 지방은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상당히 다 중요한 완성점을 이룬 도시란 얘기죠. 캉에는 두 개의 중요한 로마네스크 건물이 있어요. 생테티엔과 성삼위일체(생트 트리니테/Basilica of the Holy Trinity) 이 두 건물은 굉장히 닮았어요. 외관은 좀 차이가 나는데, 실내를 보면, 293이 쌩떼뛰엔이고, 299, 300이 성 삼위일체(생트 트리니테)인데 언뜻 보면 구별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닮았어요.

그림 299가 성삼위일체고 301이 생테티엔인데 네이브월(Nave Wall)을 보면 두 개가 많이 닮았고요. 쌍둥이까진 안가도 상당히 닮은 건물이죠. 둘의 공통점을 보면, 리브(Rib)가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프랑스와 영국의 리브 등장 시점 논쟁

더럼(Duraham) 도시가 있는데 수도원이 중심이 돼서 로마네스크 때 생긴 도시이고 지금도 꽤 큰 도시로 남아있어요. 듀람에 있는 대학은 중세 건축이나 예술이나, 성경, 신학 같은 걸 보는데 중요한 대학이에요. 이 듀람에 있는 수도원교회를 보면 리브가 등장을 해요.

듀람은 해안 쪽에 가까워요. 노르망디 지방과 교류가 있던 지역이에요. 도버해협을 놔두고 노르망디와 교류하던 지역은 이 두 군데. 일본 남쪽 가면 한국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조선족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사람인데 본인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대마도 이쪽에. 부산 가면 일본 문화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영국과 프랑스도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노르망디 지방이죠, 옛날까지는 프랑스와 영국간 서로 뺏고 뺐기고 했구요. 듀람은 좀 위쪽이긴 한데, 바닷길과 가까워서 노르망디와 교류가 많던 지역이에요. 리브는 상당히 중요한 부재(部材)예요, 리브는.

그림 287보면 기둥에서 갈라져 천장으로 올라가는 얇은 선, 그게 리브예요. 리브는 아치 밑선을 기둥에 붙여서 볼트(vault) 천장까지 올린 거죠, 한마디로. 아주 얇고 가늘고 긴 아치인 거지요. 이건 아치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내력기능을 어느 정도 갖는단 거예요. 무거운 건 못받쳐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받칠 수 있는 독자적 내력기능을 갖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 쓰였단 소리는 볼트 천장의 하중을 상당부분 받아주기 때문에 볼트천장이 두께가 얇아져요. 전체 하중을 줄이기 때문에 리브를 쓰면 얇아질 수 있어요.

결국 볼트 천장이 네이브월(Nave wall)에 하중을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볼트천장이 무게가 얇아지고 가벼워지면서 네이브월이나 네이브월에 쓰이는 기둥 체계, 갤러리 외벽의 종합적인 구조 체계가 전반적으로 유리해진단 얘기죠. 네이브월이 얇아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그래서 리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리브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가에 따라서 논란이 많아요. 듀람(더럼/Durham)이라는 도시에 리브가 완벽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영국사람들은 올려잡으려 하고 프랑스사람들은 끌어내리려하고요. 듀람과 캉 어느 쪽에서 리브가 먼저 쓰였는가에 따라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완성을 영국이 이뤘는가 프랑스가 이뤘는가 하는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 날 수 가 있는 거죠. 듀람쪽 리브 문제는 고고학에서 유명한 논쟁거리 중 하난데, 대체적으로 보면 캉이 먼저 시작된 걸로 얘기가 돼요. 캉에서는 리브가 처음 등장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얘기구요.

리브는 그로인 볼트의 궁륭선을 따라서 죽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로인 볼트는 이런 선을 갖게 되는데, 선을 따라서 리브가 놓이면서 위의 볼트 하중을 받쳐주게 되는거예요. 그게 그림 284, 285에 잘 나와있어요.

그로인 볼트는 성기 로마네스크 중에 브르고뉴 지방의 베즐레(Vezelay) 있는 마들렌느, 다시 앞으로 좀 가보면은 206, 207페이지요. 지난 시간에 브르고뉴 지방의 제3클뤼니를 봤고요. 브르고뉴 지방 마들렌느를 보면 그로인 볼트가 처음 쓰여요. 그 장면이 그림 278이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요. 그로인 볼트(cross vault)가 잘 드러나 있는데, 278을 보면 그로인볼트(cross vault)의 궁륭선이 종이 접어놓은 거 같은 정도의 선만 나타나요.

그것을 295와 비교해보면, 그림 295는 궁륭선에 볼트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발전이라는 얘기예요. 리브가 볼트 하중을 받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궁륭볼트, 크로스 볼트, 그로인 볼트가 다 같은 말인데, 거기에 리브가 달라붙는 구성방식에 대해 3차원 적으로 그려놓은 다이어그램이 그림 284예요. 엑소너로.

▲ 리브볼트의 분류와 구조적 활용

리브가 사용된 볼트를 리브볼트(rib voult)라 그래요, 리브볼트. 이 리브은 발 그대로 갈빗대죠. 여러분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리브랑 같은 의미죠 사실은. 저게 붙은 볼트를 리브볼트라 그러는데, 리브볼트는 4분 볼트와 6분 볼트가 있어요. 4분 볼트는 넷으로 나누고 6분 볼트는 여섯으로 나눈 거죠.

그림 285가 6분 볼트예요. 6분 볼트는 주기둥과 부기둥, 주기둥과 주기둥 센터를 한베이(bay)로 보고 여섯으로 나눈 거죠. 사방놀이 하는 거 같아요. 이게 6분 볼트고, 4분 볼트는 하나하나를 넷으로 나눈 거예요. 캉에서 쓰인 건 6분 볼트고, 고딕 건축 가면 90%이상이 다 4분 볼트예요.

그림 295가 6분 볼트 천장도를 그린 거예요, 이게. 거의 점선으로 되어있는 게 리브 선이에요. 이게 천정도인데, 주기둥 부기둥 사이를 여섯으로 나눈거죠. 좀 점에 그린 것과 같아요. 4분 볼트는 너무 많아요. 그림 499,504 이런 게 다 4분 볼트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이건 뭐 너무 많아서 뒤에 가다보면 다 4분 볼트예요. 어쨌든, 리브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론상으로는 기둥 하나에 리브가 8개가 필요해요, 8개가. 그림 286이 이론적, 이론상으로 여덟 개의 리브가 필요한 기둥 모습이에요. 210페이지 아래에 설명이 나와요, 왜 여덟 개가 필요한지.

그림 287과 대비를 시켜보면 이게 코어(Core) 기둥이고, 이게 대응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모서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반원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리브 단면도인데 그게 여덟 개나 필요해요, 이론상으로. 그림 287과 비교를 해보면은 요렇게 가지가 갈라져 나가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쪽 종방향 아치. 평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리로 리브가 하나 가야하고, 여기서 여기, 이 기둥을 기준으로 봤을때 양 옆으로 리브가 뻗어나가야 되요. 그 다음 이 끝으로 리브가 뻗어나가야 되죠. 그 다음이 대각선 방향, 여길 맞춰야죠, 이 끝을.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8개가 필요한 건데. 이게 네이브(Nave)고 이게 아일(aisle)이에요.

이 기둥을 기준으로 보면 이리로 하나가 가야하고, 이리로 하나가 가야되고, 이리로 하나가 가야되고, 이리로 하나가 가야돼. 그죠. 그래서 이게 십자방향, 이거, 이거, 이거의 리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개가. 대각선 방향, 4선 방향. 그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림 285로 와보면 이렇게 나란한 두 개가 있잖아요. 수직방향으로 나란한 두 개가, 아니 세 개가 있죠, 6분 볼트 보면. 거기를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가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이건 네이브 쪽 천장만 본거고, 아일 쪽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형인데 8개가 똑같이 쓰인 예는 고딕성당에도 많지 않아요. 8개를 딱 맞춰서 쓰게 되면 구조적으론 제일 완벽한 상태예요.

각각 볼트 천장, 아일천장, 그 담에 아케이드(arcade) 쪽에, 갤러리 층이나 아케이드 쪽, 네이브월 쪽에 아치를 받고 해서 각각 하나하나가 전부 받치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그 설명이 210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어요. 아케이드에서 아키볼트 양옆으로 두 개, 네이브에서 대각선 리브 두 개, 횡방향 리브 하나. 각각 받치는 부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8개가 제대로 쓰여서 구조 역할을 명확하게 하면 구조적으로 이게 가장 완벽한 방식인데, 성기 고딕건물 봐서도 이게 8개로 쓰인 건물은 없어요.

로마네스크 시대 때 캉에서는 아일 쪽에 대응기둥을 쓰지 않는 게 통례였어요. 그러면 세 개가 빠져요, 아일 쪽으로. 네이브 월로 보게 되면 세 개가 빠지는 거지요, 아일 쪽에 리브를 안쓰게 되면. 그래서 다섯 개가 남고, 대신 아케이드에 아키볼트를 두 겹으로 한단 얘기예요. 두 겹으로 한 장면이 어딨냐면, 그림 287이에요. 여기에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원래 구조적으로는 한 겹이면 충분한데, 로마네스크 시대 때는 시각적이나 의장적인 목적으로 두 겹이 되면서 세 개가 빠지고, 다섯 개에 두 개가 더해져서 일곱 개짜리가 표준형이 되요. 캉의 두 건물에서 나타난 중요한 예구요.

캉에서는 리브가 쓰이긴 했지만 리브의 구조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리브의 구조적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말은, 말했듯이 볼트 천장이 얇아져야 하는데 이 두 건물의 볼트 천장은 이전 건물에 비해 뚜렷하게 얇아지지가 못했단 소리예요.

볼트 천장이 얇아지면 이 볼트 하중을 받는 네이브월, 즉 무게가 가벼워지면 갤러리 천장을 타고 내려오는 외벽도 따라서 얇아져야 해요. 그런데 그림 288,289 이게 쌩테티엔의 단면도인데, 벽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볼트 천장의 두께가 충분히 얇아지지 못했단 얘기예요. 그 대신에 네이브월과 외벽이 두꺼운 걸 만회하기 위해 두꺼운 벽에 구멍을 뚫어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만들어 경량화를 시도해요. 이걸 벽체통로, 월패시지(Wall Passage)라 그래요. 그림 289 보면 중간에 구멍 뚫린 거 보여요?

289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게 진공으로 처리된 부분이 벽체통로예요. 그게 그림 288에 나오는 부분이냐면, 위쪽에 보면 까맣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게 그림 289에 희게 뚫려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캉에서 발견된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리브가 사용되고 거기에 대응기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건 분명 이전 건물들에는 없던 상당히 발전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1.발전). 그러나 표준형이나 이런 거랑 거리가 있어요. 실제로 외벽이라든가 네이브월 이런 게 충분히 얇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처음 사용한 점에서는 발전이지만, 그걸 구조적으로 활용해서 부수적 결과로 나타내지 못한 점에서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일종의 한계를 나타내는 양면적 해석이 가능하단 얘기죠(2.한계).

▲ 로마네스크 시대의 조화-수평과 수직 개념

과연 이런 구조적인 발전만이 과연 그 마지막 종착점인가, 최종목적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야 되요. 그림 292, 293, 294 이런데서 죽 보면 알겠지만, 수평, 구조적인 발전만이 종착점이란 얘기는 중세기독교 건축에서 수직성만이 유일한 건축적 가치라는 것과 동의어로 보면 되요. 그런데 캉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상당히 수직과 수평사이에 조화가 상당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림 292를 보면 이 건물은 구조적 발전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지은 장인들이 수직적으로 더 올라가고 싶었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수평과 수직사이의 조화로운 상태로 남은 것은 철학의 문제라는 거죠.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의 문제. 그렇게 봤을 때 로마네스크의 완성은 제일 처음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구조 첨단성도 중요하지만은 자체적 완결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네스크 자체적 완결성이라는 얘기는 212페이지 아래에서 보면, 평면구성에 나타나는 복합적 짜임새, 네이브월의 실내분위기가 주도하는 수평성, 정사각형 비례 등의 다른 목적과 함께 어울린 중세적 조화라는 거죠.

이 조화의 개념은 시대마다 틀려요. 그리스 시대 때 조화는 황금비라든가 이런 이상적인 미, 로마시대 때 조화는 실용성, 현세주의와 결부된 그런 내용들인데, 중세 때 조화는 쌍개념이에요. 213페이지 위에 중세를 괴롭힌 쌍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평성과 수직성, 지중해성과 게르만정신, 땅과 하늘, 로마적 땅의 정신과 중세적 하늘의 정신 등과 같이 중세를 괴롭혔던 쌍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절충적 통합을 얻어내는 상태가 중세적 조화라는 얘기죠. 중세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일정한 조화를 추구했단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고딕시대에 오면 조화개념이 깨져요. 수직선만 수표를 막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과연 그 중세다움의 진짜 그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로마네스크 식으로 조화의 범위에 머무른 게 되는 게 더 중세다운 거냐, 아니면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성직자들이 믿는 빛의 상태를 잘 표현하기 위해 수직적으로 올라간 고딕이 진짜 중세다운 거냐, 중세다움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세기독교 문명을 이끌었던 서양 쪽에서도 논쟁이 갈려요. 로마네스크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은, 고딕은 너무 그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거고, 너무 순도를 잃어서라고 말해요. 일단 , 고딕은 너무 그로테스크해요. 그런데 그림 250이나 253에서 보이는 로마네스크의 단정함과 깔끔함, 절제감 이런 게 없어요, 고딕에서는 사라지니까.

로마네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록 앞 시대의 문명, 양식이고 구조적으로는 덜 발달했지만 고딕보다 로마네스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중세 기독교 정신이나 중세다움의 본질을 기독교적인 열정 이런 걸로 정의하는 사람들에게 로마네스크는 너무 심심한 거지요. 아직 충분히 발화하지 못한 덜 익은 과일인거고, 활짝 덜 핀 꽃인 거고요. 이게 활짝 핀 고딕이야 말로 중세정신의 본질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중세 내에서도 갈린단 얘기예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요.

적어도 내 수업 들은 사람들은 서양, 유럽 중세 문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요. 이것은 19세기 가면 중세 리바이벌 운동이 일어나요. 무엇을 리바이벌 시킬 것인가의 논쟁들이, 지금 얘기한 두 가지 관점이 갈리게 되는 거죠. 로마네스크를 리바이벌해야 된다는 그룹과 고딕을 리바이벌해야 한다는 그룹이 갈려요. 19세기 때 민족주의, 19세기 제국주의가 결국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죠. 우리나라 식민지화하고 했던 군국주의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이런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독일에서 독일의 정수가 로마네스크다, 고딕이다 해서 자기들끼리도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요.

중세 문명을 바라보는 큰 시각 가운데, 전자인 로마네스크가 추구했던 중세적 조화개념 이런 것이 오히려 중세다움의 가장 전형적인 거고 핵심이라고 보는 시각이 잘 드러난 건물이 캉에 있는 두 건물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중세적 조화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1:1 정사각형 비례예요, 수직과 수평사이의 절충적 통합.

이 건물에 나타난 구체적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 아케이드 층과 갤러리 층이 아치 개구폭을 최대한 넓힌 것이죠. 그림 292보면 아케이드에 있는 큰 아치 하나가 베이(bay)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림 273, 제3 클뤼니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죠. 제3클뤼니는 갤러리 층을 두 단 낮게 한 다음 작은 아치 세 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캉의 건물은, 갤러리층 높이를 가능한 한 끌어올린 담에 큰 아치 하나로 나눴어요. 이런 게 다 수평적 느낌을 강화하기 위한 처리들이고요. 273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네이브 폭이 넓어졌어요, 최대 11미터까지. 높이는 20여 미터를 넘지 않고요. 폭대 높이비례가 1:2 범위 내에 들어왔단 얘기예요, 분위기가. 그림 291 오른쪽 노트르담 수도원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단순한 수치상의 차이는 예를 들어, 노트르담 수도원 교회 천장이 조금 더 높아요. 이게 한 402미터 될 텐데요. 그런데 벽구조, 네이브홀을 보세요. 이 수도원 교회는 이 전부 위로 달라붙어 있어요. 왼쪽 벽을 보면 아케이드의 벽높이가 오른쪽 생테티엔 보다 높아요. 그 대신 갤러리는 굉장히 낮아요. 천측창으로 위로 쫙 올라가죠.

반면 이쪽 쌩테티엔 네이브월 구조를 보면 아케이드 높이와 갤러리 홀 높이가 거의 같아요, 천측창 높이도 거의 같고. 이런 식으로 거의 1:1:1, 반면에 노틀담 수도원은 2:1:1이죠. 이런 비례차이가 단순하게 그 폭과 높이의 절대치에 더해서 어떤 상대적인 비례감을 만들어낸단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생테티엔은 이 벽 높이 조절을 가지고 수평성과 수직성 사이의 분위기 조절을 했단 얘기예요. 이런 처리는 사실 설계에도 잘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방의 분위기를 수직 대 수평 사이의 문제로 끌고 가고 싶을 때는, 단순 수치도 중요하지만 창 사이에 비례를 어떻게 분할하느냐도 방 분위기 결정에 상당히 중요하단 얘기죠. 현대 건축가 중에서도 분위기 특징이나 이런 거 설명해놓은 문구 보면 로마네스크 적 비례를 사용해서 안정감을 얻어내는 어쩌구저쩌구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 건축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나온 개념이죠.

정사각형 비례단위로 실내를 분할하는 시각적 기능을 가졌다. 이런 내용들이 캉에서 나타난 성기 로마네스크의 중요한 내용이었단 얘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5강 로마네스크 건축의 완성점

2교시 독일 로마네스크 건축의 발전

▲ 홀교회와 돔식 바실리카의 구성

홀 교회(Hall church)와 돔식 바실리카는 한마디로 내부 천장높이와 아일천장 높이가 같은 건물이에요. 네이브월이 조금 높을 순 있는데 거의 같죠. 그래서 천측창은 갖지 않죠. 천측창이란 건 네이브 천장과 아일 천장의 높이 차이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평면은 3랑식 바실리카, 라틴크로스가 아니라 트란셉트(Trancept)도 안 갖는 게 보통이에요. 바실리카가 표준형이고 1랑식 단일 육면체인 경우도 많아요.

그림 302가 평면의 대표적인 경우고 304가 단면이에요. 여기서는 네이브 천장이 아일 천장보다 조금 높긴 한데 보면 천측창이 없고요. 네이브월(nave wall)은 아케이드(arcade)만으로 이루어진 1단 구성이 표준형이지만 갤러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림 303 왼쪽에 있는 창이 아일(aisle)외벽에 있는 창이에요. 그걸 통해서만 채광하게 되어있어요. 그림 304에서는 양쪽 외벽 끝에 위쪽에 뚫린 노란 창 부분이고요. 홀교회의 대표적 예는 그림 224페이지 중간 아래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푸와티에 노트르담 라그랑드(Notre-Dame la Grande Poitiers), 뀌노에 노트르담 등등 돔식 바실리카는 비잔틴(Byzantine) 때 한번 나왔던 유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긴 선형 공간을 정사각형 베이(bay(로 나눈 다음 거기다 돔을 씌우는 방식이죠. 그림 311이 전형적인 예고, 그 단면을 보게 되면 그림 312죠. 그림 313이 이 돔식 바실리카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인 페리괴(Périgueux)에 있는 생프롱(Cathedral Saint Front)의 모습이죠. 중요한 차이가 있게 되는데 돔을 받치게 되는 방식이 펜던티브 돔이죠. 비잔틴의 펜던티브 돔(pendentive dome)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아까 캉에서 봤던 그런 식의 대응기둥이 펜던티브 돔에 달라붙게 되요. 그래서 그림 313을 자세히 보면, 펜던티브는 코어 기둥이 받치고 있고, 아키볼트를 받치는 대응기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앞에서 봤던 캉이라든가 이런데 나타난 대응기둥 체계가 펜던티브 돔에 응용이 된 거예요. 아키볼트를 받치는 부재에 대응기둥이 하나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림 313에서. 그것을 실제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성소피아의 펜던티브와 비교해보면 명확한 구조분리가 안 일어났단 얘기예요. 성소피아(Saint Sophia Cathedral)의 펜던티브는 314페이지에 페이지에 있어요. 막 뭔가 혼재되어 있는 식이죠. 로마네스크 때 쓰인 펜던티브 돔은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잘 정리되어있어요. 대응기둥을 써서 내력구조와 피내력구조를 구분 하고, 둘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낸 게 로마네스크적 명확함의 내용인거죠.

이런식으로 돔을 명확하게 표현한 방식이 파리 국립도서관이에요. 베엔, Bibliothque Nationale de France, 베엔이라 그러는데 19세기 때 라부르스크가 지은 구 파리국립도서관이 있어요. 우리 이화여대 ECC 설계한 페로가 설계한 국립도서관은 신 국립도서관이고요. 거기서 철물구조를 써서 이런 다이어그램 식으로 펜던티브 돔의 구조작용을 명확하게 표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해요.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된단 얘기예요. 어떤 역사적인 구조의 설계작용을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단 얘기고요. 그래서 이 돔식 바실리카는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Basilica San Marco)를 표준으로 삼아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Venetian Republic)과 무역거래가 많았던 프랑스 남부지방, 서부지방에서 베네치아의 산마르코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게 좀 전에 봤던 페리괴에 있는 생프롱이에요. 그림 320은 공중에서 본 것이고요. 319 산마르코와 비교해 보면, 한눈에 비교가 되잖아요. 돔식 바실리카의 대표적인 예는, 207페이지 아래부터 있어요. 앙굴렘 성당도 중요한 예고요. 앙굴렘 성당과 생프롱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예에요. 이 두 개 건물들은 로마네스크에서의 중앙집중형 건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독일 성기 로마네스크는 잘리어 왕조(Salier王朝)와 호엔슈타우펜 왕조(Hohenstaufen王朝)가 이끌었어요. 그림 328은 신성로마제국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성기 로마네스크 때 독일의 지도모습이죠. 이걸 다 통틀어서 신성로마제국이라 그래요. 이때는 이탈리아 북부지방까지 잡아먹었죠. 얘기했지만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Lombardia) 지방이 게르만족이 세운 동네이기 때문예요. 원래 이탈리아 민족, 원래 로마 민족은 키가 크지 않아요. 북부지방에는 독일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웠기 때문에 밀라노 사람들이 골격이 커요.

▲ 슈파이어와 클뤼니에서 나타나는 독일다움과 프랑스다움

독일 성기 로마네스크도 라인란트 상류와 하류로 구분 돼요. 그림 329 지도 보면, 스와비아(Swabia)에서 프랑코니아(Franconia)로 흐르는 강이 라인 강(Rhein R.)이에요. 거기 보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가 있고 그 담에 슈파이어(Spires)가 있어요. 보름스(Worms), 마인츠(Mainz) 까지를 보통 상류지방이라 그래요. 그 담에 위로 올라가면 쾰른(Cologne)이 있어요, 쾰른. 마인츠부터 한번 꺾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류라 그러는데, 상류지방은 도시가 많이 몰려있어요. 여기가 나중에 공업지역이 되는 거고요. 2차 대전 이후 라인 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라인 강이 폭은 좁아요. 센강(Seine R.)도 그렇고 유럽 강들은 폭이 좁지요. 센강은 돌멩이 잘 던지는 사람이 던지면 반대쪽에 닿아요. 라인강은 폭이 좁은데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운하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심이 얕기 땜에 밑에 파내야 되거든요. 독일이 2차대전 극복하고 선진국 됐다고, 독일이 내륙 운하하는 것을 무조건 따를 건 아니지요, 이건 자연조건이 다른 건데.

어쨌든 그 라인강 따라서 쭉 독일의 공업도시들이 몰려있죠. 프랑스와 맞닿아있는 여기가 보통 독일의 서부전선이죠. 베를린은 위쪽에서 동부유럽을 담당하는 도시고요. 독일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슈파이어와 쾰른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독일의 성기 로마네스크가 발전을 했다는 거죠.

슈파이어는 클뤼니(Cluny)와 엄청난 경쟁관계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대별성도 드러나요. 슈파이어는 신성로마제국이라고 하는 세속권력을 대표하는 건물이에요. 이 신성로마제국은 독일의 지역주의를 대표하죠. 베니딕토 수도회의 타락에 반대했지만 클뤼니의 뿌리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베네딕토 수도회인 거고, 로마의 중앙가톨릭 정부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죠.

실제로 묻혀있는 사람들도 보면, 클뤼니는 주로 성직자들이 묻히는데, 슈파이어 보면 네명의 황제와 그 두 명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현실 권력자가 안장 되는 건물이에요. 상징성에서 대별이 되죠. 제1슈파이어에 위에 제2슈파이어 추가 공사를 하면서 성기 로마네스크가 시작이 됐단 얘기예요. 제2슈파이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천장을 석조 그라인볼트로 처리한 점이에요. 그림 194 제1슈파이어와 비교를 해 보면 그림 194는 아직 목조 평천장이죠. 목조평천장인데, 이게 그림 334에 오게 되면 석조그라인 볼트로 바뀌어요.

네이브월과 갤러리홀은 2단 구성으로 남아 있고 대응기둥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림 334 보면 석조그라인볼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대응기둥을 사용한 것은 발전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캉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발전내용인데, 갤러리가 없어요. 대신 네이브홀이 전체적으로 벽면이 상당히 넓어요. 캉 보면 벽면이 거의 없고 기둥과 아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봤던 그림 292를 보면, 벽면이 거의 없어요. 다 기둥 아님 구멍이죠.

제2슈파이어는 그림 338, 335 이런데 보면 벽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 334 이런데 보면. 벽면이 많고, 들고 남이 있긴 있지만 요철이 심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평활면의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고요, 상당히 추상적인 분위기. 돌의 물성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걸로 볼 수 있죠. 이 것은 독일식 합리주의로 볼 수 있어요.

슈파이어의 이런 대비는 독일다움을, 클뤼니는 프랑스다움을 대표하게 되죠. 똑같은 합리성인데도 프랑스의 합리성은 기둥구조를 이용한 구조적 합리성이고, 독일의 합리성은 추상적 합리성이죠. 이런 점에서도 둘로 갈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차이점이 나타난단 얘기죠. 똑같이 돌을 다루는데 프랑스에서는 기둥, 리브, 네이브월 등 구조 방식으로 풀어서 수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도구(디딤돌)로 사용했어요. 이에 반해 돌의 물성이란 건 결국 땅에서 나온 거니까, 땅의 성질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을 추상적 분위기로 표현한 것이 독일식이죠.

프랑스는 구조를 통해 수직선이란 것에 빛을 실어 하늘을 표현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중앙 로마 카돌릭 정부의 생각인 거죠. 독일은 황제가 중심이 돼서 기독교를 지배하려 했던 신성로마제국이 아직 땅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이런 대별성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과연 중세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242페이지 아래 보면, 수직성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기둥체계가 아닌 땅의 물성을 상징하는 네이브월에서 표현되었죠. 이게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326페이지 보면 중세 기독교 건축에서의 상징주의, 리얼리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상징체계가 나오죠. 328페이지 가면 기둥이 사제를 상징해요, 중세 기독교주의에서는. 수직성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기둥체계가 아니라, 기둥체계가 기독교를 상징한다는 게 뜬금없이 무슨 얘긴가 궁금해할 텐데 그건 328페이지 설명을 읽어보면 되요.

이런 내용이 중요한 독일 성기 로마네스크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가 잡혔죠. 244페이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스위스 바젤(Basel, 지금은 바젤이 스위스죠)에서 마인츠에 이르는 라인란트 상류 지역의 여러 도시들로 퍼져나갔어요. 아까봤던 마인츠, 보름스, 이런 주요 도시들에 있는 성당들, 밤베르크 성당(Bamberg Cathedral) 등이 이걸 대표하는 예고요.

▲ 로마네스크 건축의 중심, 쾰른

쾰른은 로마네스크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지금 쾰른을 대표하는 쾰른 성당이 있지만 사실 기독교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봤을때 쾰른 성당은 프랑스 고딕성당을 본따서 완공도 19세기에나 되는 등 건축사적으로 별로 중요할 데가 없는 성당이에요. 쾰른의 진짜 비밀은 로마네스크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에 있죠.

쾰른을 중심으로 형성된 로마네스크 건축의 새로운 특징들을, 이게 어느 정도 큰 덩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라인스쿨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해요. 쾰른을 중심으로 한 라인스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가대석을 중심으로 한 삼엽형(三葉形)평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 352 평면을 보세요. 오른쪽에 성가대석이 있고, 보통은 방사형 채플이 붙는데 여긴 방사형채플이 없죠. 대신 똑같이 반복이 된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꽃잎이 세 개인 형태라 삼엽형이라 불러요. 이게 이 지역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징예요.

이 부분이 트란셉트(Trancept)잖아요. 트란셉트가 3랑식이잖아요. 이걸 3랑식 트란셉트라고도 부르고요. 순례교회에서 봤던 순환동선과 같은 구성이에요. 여기도 보면 복도가 하나도 안끊기고 쭉 이어지고 있지요.

삼엽형의 건축적 특징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250페이지부터. 첫 번째는 두축의 수직교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네이브 축과 트란셉트 축의 수직교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 공간의 연속적 흐름으로 실내의 통일감을 형성했죠. 세 번째, 선형공간과 중앙집중형 공간의 혼합이죠. 이 것은 선형, 바실리카 선형 공간에다가 이 부분을 크게 더한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뤼크로스의 한쪽을 잡아 늘린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선형공간과 중앙집중공간의 혼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넷째,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한 모듈(module) 공간의 강한 규칙성이 실내를 지배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건물에 나타난 특징들은 독일만의 지역성과 어떤 표준형에 나타나는 국제성이 혼합된 걸로 볼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슈파이어(제2슈파이어)에서는 돌의 물성을 통해서 독일다운 물성을 표현했다면, 쾰른 성당에서는 독일의 지역성을 표현했죠. 251페이지 아래 보면 아일의 순환성, 중앙집중성, 네이브월의 구성 등. 국제주의 국제성은 모듈구성으로 해서, 프랑스가 대체적으로 국제주의의 표준형을 많이 지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독일은 그거보단 상당히 더 노골적으로 지역성을 많이 추구한 차이를 보여요.

그 때 얘기했지만 이런 점이 라틴라인(서남 유럽, 라틴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주류 문화권과 항상 대척점을 이루 게 하는 독일다움의 기본 내용 중 하나예요. 이게 저먼리스, 독일다움이죠. 라틴라인은 이태리에서 프랑스, 영국까지 포함한 서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럽의 주류문화권이죠. 그런 민족성이 독일인들의 국민성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로마네스크 건축에서도 독일성이 잘 드러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똑같이 순환동선을 썼는데도 순례교회의 순환동선은 기능적 측면이 강한데 반해서 잘리어의 순환성은 공간적 통일감을 주요목적을 갖는 차이점이 있었단 얘기고요.

중앙카톨릭 정부에서 선호했던 교회양식은 바실리카 선형공간인데 거기에 대비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중앙집중성은. 그래서 삼엽형의 대표적인 예인 장크트 마르틴인 카피털, 그러니까 산타마리아 인 캐피털(Santa Maria in Capital)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 건물이 대표적인 예고 이것과 비슷한 건물 구성을 보여주는 건물들이 쾰른 시내만 해도 많이 지어졌단 얘기예요.

그로스 장크트 마르틴 성사도, 그림 357, 358 이런 예들처럼 쾰른은 로마네스크 때 교회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 로마네스크 중세 교회 건축을 대표하는 예들이 쾰른 성당이 아니라 이 로마네스크 건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대표적인 특징은 삼엽형이에요.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로마네스크는 이번 주로 끝. 다음 주부터 고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